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4일 서울 진관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선재의 선물'을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꿈·희망 심은 '선재 선물'

아름다운동행, 진관지역아동센터 방문
총무원장 자승스님, 책 목도리 등 전달

연말을 맞아 사회적으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활동들이 활발한 가운데, 아름다운동행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선재의 선물'을 전하는 훈훈한 보시행을 펼쳤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진관지역아동센터 등에 목도리, 모자, 책,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선재의 선물'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배상문 골프선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물 전달은 지난 17일 진관사가 후원한 자비나눔 기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선재의 선물은 진관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열린학교, 은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됐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뿐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와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에도 선물을 전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트렌드허브에서도 생수 600병을 아름다운동행에 후원하며 자비나눔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진관사가 불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을 펼쳐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곳 아동들이 즐거운 마음을 열심히 공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 아동들에게 호두과자를 선물한 홍보대사 배상문 선수도 "연말을 맞아 뜻 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불자로서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1월19일부터 실시한 '선재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선물을 지역 아동센터와 공부방, 모자가정 등 전국 2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진관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해체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학습지도, 독서 및 숙제지도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1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엄태규 기자

"불자인재 육성에 써 달라"

은해사,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금 기탁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스님)가 지난 2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주지 돈관스님을 중심으로 대중스님들이 뜻을 모아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에 설립한 '동곡장학회'의 장학금으로, 불자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 된다.

이날 돈관스님은 "은사이신 동곡일타 대종사 열반10주기를 맞아 평소 불교인재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두셨던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스님의 호를 따 동곡장학회를 설립했다"면서 "앞으로 불교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동진 경주동국대 총장은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곡장학 프로그램은 돈관스님을 중심으로 동곡일타문도에서 불교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학기금 모금사업이다.

제10교구본사 은해사는 지난 2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은해사는 지난 19일 영천시 수덕웨딩연회장에서 은해사와 영천시 발전을 위한 은해인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은해사 본·말사 스님들과 김영석 영천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은해사와 영천시의 공동발전과 화합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각 기관장 및 신도회장의 송년인사,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지역 노인회 발전을 위해 대한노인회 영천시지부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은 법문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장학금 대폭 확대

東大총동창회, 사업계획 발표

동국대 동문들이 모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큰 걸음을 시작했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장학금 대폭 확대와 학교 정문에 일주문 건립 등을 주요 골간으로 하는 학교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3대 사학으로 대표되던 동국대가 현재는 대학평가순위에서 27위로 내려앉는 등 위상이 크게 실추돼 동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는 '3대 사학 위상 복원'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우선 기존 장학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매년 40명에게 모두 4000만원을 전달하는 장학금을 최대 500명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교수들에게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불교종립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주문' 형태의 정문을 건립해 기증할 계획이다.

총동창회는 이연택 회장 취임 후 동문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4개월 만에 25억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차 모금 목표인 100억원까지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연택 회장은 "동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힘을 합쳐 모교 중흥에 나서고 있는 만큼, 종단과 법인, 학교도 제2의 건학 정신으로 종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하영 기자

'국립공원 해제추진' 최우수 종무에 선정

불기 2553(2009)년도 최우수 종무에 '국립공원 해제 및 문화유산지역 보전 추진 활동'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4일 종무회의를 열고 올 한해 우수 종무에 대해 포상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우수 종무에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불교소양강좌(총무부 총무팀), 불교음악 육성 기반 마련(문화부 문화팀),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총무원 사회부, 아름다운동행), 불교입문 강사 양성과정(교육부 연수팀), 어린이청소년포교 전진대회(포교부 어린이청소년팀), 사찰음식체험사업 및 사찰음식점(바루) 운영(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 6개 사업이 뽑혔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추진위원회 태스크포스팀(TFT)이 주도한 '국립공원 해제 및 문화유산지역보전 추진 활동'은 환경부의 일방적 자연공원법 개악을 저지하고 종단과 협의해 추진토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7·2 전국 본말사주지 결의대회를 원만 성취하는 동시에 국립공원 제도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영섭 기자

국제포교사회 영어강좌 개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오는 2010년 1월9일부터 3월6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제16기 기초불교 영어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영어강좌는 불교교리와 역사, 부처님의 생애 등 불교전반을 배우게 된다. 특히 강좌 수료자는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선발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2010년 1월9일까지 국제포교사회 홈페이지(www.idi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인탁 기자

승가학원 이사장에 자승스님 선출

86차 이사회서 결정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선출됐다. 승가학원은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86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호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제8대 이사장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 자승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중앙승가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잘 이끌어 오셨다"며 "이사장으로 선출된 만큼 못지않은 관심으로 중앙승가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승가학원은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이사장직을 내놓음에 따라 지난 11월 열린 85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에 자승스님을 선임한 바 있다.

이밖에 승가학원 이사회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김하영 기자

현장에서

전역 장성은 불자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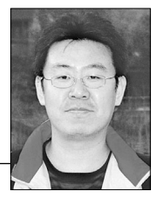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육사교장 재직 시부터 불교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다. 종단에서는 불자대상을 수여해 고마움을 표시했었다.

몇 달 전 임 총장이 전역하자 찾아온 사람들은 불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국가 발전에 끼친 공이 크다며 감사장을 수여한 것도, 임 총장의 군 경험을 살려 국가를 위해 더 봉사해달라며 강연을 요청한 것도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 한 기독교대학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반면 종단은 임 총장 전역 후 그 흔한 감사패나 감사 꽃다발 하나 보내지 않았다. 현역 때 자랑스런 불자상까지 수여했던 종단은 전역 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임총장 뿐만 아니다. 장성을 지낸 많은 불자들이 전역 후 기독교 대학이나 관련 단체에 몸담고 있다.

1970년대 불교는 군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았다. 국방부 육군본부 각군 사령부를 비롯해 사단 연대까지 불교장교회가 결성되고 많은 부대에 법당이 들어섰는데 이는 정승화 장군 때문이었다. 인사국장을 지냈던 정 장군이 처음 육본에 불자장교회를 결성해 그 여파가 전군에 파급된 것이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천주교로 개종했다. 12·12 후 정부에서 기피 인물이 되자 스님과 불교계가 그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춥고 외롭던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군종신부였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흐르고 수 없는 반성을 했는데 권력 잃은 불자를 홀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많은 제2의 정승화 총장을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답답하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봉녕사 승가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 공고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
(초발심자경문, 염불실기, 불교기초지식)

◈ 도착일시
• 2010년 2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음력 12월 19일)

◈ 시험일자
• 2010년 2월 3일(음력 12월 20일)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 用)
5) 최종학력 증명서
6) 사진(3×4) 3매

◈ 준 비 물 : 만의, 장삼, 필기도구

◈ 버스운행 : 수원역 앞에서 봉녕사 승가대학 버스를 오후 1시~4시까지 운행함.

◈ 연 락 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전화 031) 256-4127
• 팩스 031) 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묘 엄

봉녕사 금강율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봉녕사 금강율원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 졸업생 스님들의 입방도 가능)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불교교리, 범망경)

◈ 도착일시
• 2010년 2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음력 12월 19일)

◈ 시험일자
• 2010년 2월 3일(음력 12월 20일)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用)
6)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7) 사진(4×5) 3매

◈ 준 비 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 연 락 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금강율원
• 전화 031) 256-4127
• 팩스 031) 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금강율원 율 주 묘 엄 / 율원장 대 우